

옷감이 살아나는 스팀 건조의 시작! LG 트롬 건조기

의류건조기 시장은 고객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크게 성장했다. LG 트롬 건조기는 고객 니즈에 따라 차별화된 스팀기술, 대용량 건조성능, 탁월한 에너지 효율, 차별화된 편의성을 갖춰 프리미엄 건조기의 대표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LG 트롬 건조기 신제품은 대용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료의 걱정을 줄여주는 등 핵심부품과 기술을 지속 진화시키며 차별화된 기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LG TROMM 건조기

프리미엄 건조기의 대명사 ‘LG 트롬 건조기’

트롬 건조기는 LG전자의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다. 건조기의 경우, 국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 LG전자가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를 국내에 선보이면서부터다. 뜨거운 열풍을 만드는 히터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저온제습 방식으로 건조하는 4세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 주기적으로 직접 세척해야 하는 수동세척 방식과 달리 건조 코스를 사용할 때마다 알아서 물로 씻어주는 편리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트루스팀을 활용한 건조기의 사용성 확장,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등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적 장점으로 국내 건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트루스팀으로 탈취, 살균, 옷감 주름 완화까지

LG전자는 2020년 트루스팀을 탑재한 트롬 건조기를 처음 선보였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드는 트루스팀은 탈취와 살균은 물론 옷감의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트루스팀을 포함해 LG전자가 최근까지 국내외에 등록한 스팀 특허는 1천 건이 넘는다. 신제품의 스팀 살균코스는 유해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제거한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험한 결과 이 코스는 인플루엔자(H1N1), 인플루엔자(H3N2), 엔테로(PEA), 아데노(ICHV), 헤르페스(IBRV) 바이러스를 99.99% 없앴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험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MHV 바이러스도 99.99% 제거했다. [최근의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는 다른 바이러스임] 깨끗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상이 중요해진 요즘, 트루스팀으로 의류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나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는 등 아끼는 의류를 오랫동안 깨끗하게 입을 수 있게 해준다. 리프레쉬 코스와 침구털기 코스 등은 옷과 침구를 쾌적하게 관리해준다. 이 코스들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을 통해 스팀옵션 선택 시 땀냄새 등 옷감에 밴 냄새를 99% 제거하는 탈취성능을 검증받았다. 고객들은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해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인 LG 씽큐(LG ThinQ)에 연결하면 스마트페어링, 다운로드 코스, 원격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진단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페어링 기능은 LG 씽큐 앱과 연결된 세탁기로부터 세탁 코스 정보를 건조기에 보내 건조 코스를 알아서 설정해준다.



CEO INTERVIEW



LG전자(주)
사장

권봉석

LG전자의 트롬 건조기가 4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LG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앞선 생활가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왔습니다. 트롬 건조기를 앞세워 건조기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